

18세기 『염불보권문』의 편간과 불교사적 의미*

김기종

동국대 HK연구교수
wkiji@hanmail.net

I. 문제 제기

II. 서지와 이본간의 관계

III. 텍스트의 구성과 내용적 경향성

IV. 시대적 맥락과 간행의 성격

요약문

이 글은 『염불보권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염불보권문』의 성격과 시대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염불보권문』은 수록된 글들의 출전 및 내용에 따라, 제1부 경전에서 뽑은 글, 제2부 『예념미타도량참법』 소재 왕생담, 제3부 염불의식문, 제4부 보유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유편을 제외한, 『염불보권문』은 ‘염불’의 측면에서 본다면, ‘염불의 이유(제1부)→염불의 이익(제2부)→염불의 실천(제3부)’이라는 비교적 논리적인 전개 양상을 보인다.

제1·2부는 각각 ‘부처님의 말씀’·‘왕생의 실례’를 근거로, 왕생과 성불을 염불의 이유·이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3부는 의식의 절차라는 행위를 통해 왕생·성불에 대한 희구 및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각 부분의 끝에는 왕생·성불과 이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글들을 반복·배치함으로써 『염불보권문』 전체의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61-A00008)

『염불보권문』은 염불을 해야 하는 이유가 ‘왕생’과 ‘성불’에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왕생’과 ‘성불’을 위해 염불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염불보권문』의 ‘염불’이 ‘칭명염불’만을 가리키고 있는 점과, 성불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는 점은 이 책의 특징적인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유심정토’와 ‘관념염불’을 강조하는 기존의 ‘염불선’적 경향에 대한 대안이자, 일종의 ‘염불운동’을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움직임은 19세기 염불결사의 성행과 왕생류 불교가사의 유행을 통해, 당시 불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는데, 『염불보권문』이 18세기의 한 세기 동안 7차례나 판각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염불보권문』은 17세기 전반 삼문수업의 정립 이후, 기존의 염불선적 경향에 대한 대안으로 전개되었던 새로운 염불운동을 제창 내지 선도한 시대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염불보권문, 예념미타도량참법, 명연, 칭명염불, 극락, 왕생, 성불

I. 문제 제기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은 1704년(숙종30) 경북 예천 용문사의 승려 명연(明衍)이 편찬한 책으로, 원 서명은 『대미타참약초요람보권염불문(大彌陀懺器抄要覽普勸念佛文)』이다.¹⁾ 여기에서 ‘대미타참’은 중국 원나라 왕자성(王子成)의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이하 『미타참법』으로 표기함)을 가리킨다.

그러나 『염불보권문』은 서명과는 달리, 이 『미타참법』뿐만 아니라 극락·염불과 관련된 비교적 다양한 글들을 수록하고 있다. 편자인 명연이 직접 지은 글들을 포함하여, 여러 경전에서 발취한 글들과, 염불의식 관련 진언·게송·발

1) 이러한 사실은 명연의 서문 제목인 ‘大彌陀懺器抄要覽普勸念佛文序’를 통해 알 수 있다.

원문, 그리고 가사작품인 「서왕가」·「인과문」 등이 실려 있는 것이다. 또한 표기의 측면에 있어서도 한문원문과 그 언해문(諺解文)을 함께 실은 것, 한문원문에 한글 독음만 단 것, 순한글로 표기된 것 등 하나의 책 안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책은 예천 용문사에서 간행된 이래, 80여년의 기간 동안 경상도·황해도·평안도·전라도 지역의 각 사찰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복각·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간본에 대한 첨삭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사실만으로도, 『염불보권문』은 18세기 불교문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그 중요성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형편이다. 『염불보권문』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곧 18세기 방언사 기술을 위한 국어학적 연구,²⁾ 「서왕가」의 문학적 연구를 위한 배경적 고찰,³⁾ 조선후기 정토신앙 연구의 일환으로서의 불교사상사적 접근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논의는 국어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단편적인 논의나 해제 수준의 언급에 그치고 있으며, 『염불보권문』을 구성하고 있는 각편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점을 보인다.⁵⁾

그러므로 이 글은 『염불보권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염불

-
- 2) 김주원, 「18세기 경상도 방언의 음운현상」, 『인문연구』 제2집(대구: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4); 김주원, 「18세기 황해도 방언의 음운현상」, 『국어학』 제24집(서울: 국어학회, 1994); 정우영, 「<염불보권문> 한자음 표기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국문학』 제120집(서울: 국어국문학회, 1997).
 - 3) 김종진, 「불교가사의 유통 연구」, 『불교가사의 연행과 전승』(서울: 이화문화사, 2002), pp.94-102; 김종진, 「<서왕가> 전승의 계보학과 구술성의 층위」, 『불교가사의 계보학, 그 문화사적 탐색』(서울: 소명출판, 2009), pp.18-23; 최형우, 「18세기 경상지역의 『보권염불문』 간행과 수록 가사 향유의 문화적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60집(서울: 열상고전연구회, 2017), pp.167-173.
 - 4) 이종수, 「조선후기 정토사상 연구」, 『회당학보』 제13집(서울: 회당학회, 2008), pp.206-208;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박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 pp.165-166; Kim Yongtae, “The Establishment of the Approach of Chanting Amitabha’s Name and the Proliferation of Pure Land Buddhism in late Choson”,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6-1(Seoul: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n, 2015), pp.146-147.
 - 5) 일례로, 김종진, 위의 논문, 2002, p.96에서는, 『염불보권문』이 대중포교와 불교의식의 정비라는 당시 불교계의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간행된 것으로 보았고, 이종수, 위의 논문, 2008, p.207에서는 18세기 염불신앙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염불신앙의 교과서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염불보권문』이 18세기의 한 세기 동안 7차례나 판각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염불보권문』 소개 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다. 이들 논문은 『염불보권문』의 목차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각편의 구체적인 내용 및 특징적인 국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보권문』의 성격과 시대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전하는 『염불보권문』 7종의 서지와 이들 이본간의 관계를 비교·검토하여, 본 고의 논의를 위한 텍스트를 확정할 것이다. 다음으로, 확정된 텍스트를 각편의 출전 및 내용에 따라 1~4부의 네 부분으로 나눈 뒤, 각 부분의 특징적인 국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결과와, 『염불보권문』 간행 당시의 불교계 상황 및 동시대의 염불 관련 저술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염불보권문』의 시대적 맥락과 그 성격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II. 서지와 이본간의 관계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현재 전하는 『염불보권문』의 판본과 서지사항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1〉 『염불보권문』의 서지사항

| 서명(표제) | 간행연대 | 공덕주 (편자) | 간행처 | 장수 | 행·자수 | 소장처 |
|--------|----------------|-------------|------------|----|---------|--|
| 彌陀懺略抄 | 1704 (숙종30) | 明衍 | 醴泉 龍門寺 | 43 | 13행 16자 | 서울대 규장각 김주원 교수 |
| 彌陀懺略抄 | 1741 (영조17) | 미상 | 大邱 修道寺 | 50 | 13행 16자 | 서울대 규장각 |
| 普勸文 | 1764 (영조40) | 快善 | 大邱 桐華寺 | 66 | 11행 22자 | 영남대 도남문고 |
| 念佛普勸文 | 1765 (영조41) | 寬休 | 九月山 興律寺 | 52 | 10행 22자 | 고려대 도서관 |
| 普勸文 | 1765 (영조41) | 미상 | 妙香山 龍門寺 | 46 | 11행 22자 | 충남대 도서관 |
| 彌陀懺略抄 | 1776 (영조52) | 미상 | 陝川 海印寺 | 62 | 11행 18자 | 서울대 일사문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강대 도서관 |
| 念佛普勸文 | 1787 (정조11) | 미상 | 茂長 禪雲寺 | 60 | 11행 18자 | 서울대 가람문고 |

『염불보권문』은 현재 7종의 판본이 남아 있다. 곧 1704년 예천 용문사본, 1741년 대구 팔공산 수도사본, 1764년 대구 팔공산 동화사본, 1765년 황해도 구월산 흥률사본과 평안도 묘향산 용문사본(이하 묘향산본으로 표기), 1776년 경상도 합천 해인사본, 1787년 전라도 무진 선운사본 등이 그것이다. 이들 판본 중, 수도사본은 용문사본의 판목을 그대로 쇄출(刷出)하고 거기에 「임종정념결」·「부모효양문」의 2편을 추가한 것이다. 해인사본의 경우는 소장처에 따라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장서각·서강대 소장본은 「불설아미타경」과 「현씨발원문」이 있고, 일사문고·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이 두 편이 없는 대신 「현씨행적」이 있다. 선운사본은 해인사본을 복각한 것으로, 후자의 구성 및 내용과 일치한다.

위 도표의 ‘공덕주’ 항목은 해당 판본의 간기에 명시된 것으로, 책의 편집과 판각을 주관한 인물로 추정된다.⁶⁾ 용문사본의 명연과 흥률사본의 관휴는 구체적인 행적만이 아니라 생물연대조차 알 수 없는데, 다만 명연은 『염불보권문』의 서문에서 자신을 ‘청허의 후예(淸虛後裔)’라고 밝히고 있다.⁷⁾ 동화사본의 기성 쾌선(箕城快善, 1693~1764)은 그의 비문과 행장이 전하고 있어 구체적인 행적을 알 수 있다.⁸⁾ 쾌선은 『염불보권문』의 발문을 쓴 상봉 정원(相峰淨源, 1627~1709)의 법손으로, 18세기 염불신앙의 흥성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인물로 평가된다.⁹⁾ 이러한 평가는 그가 본고의 4장에서 살펴볼 『청택법보은문(淸擇法報恩文)』·『염불환향곡(念佛還鄉曲)』의 작자라는 점에 근거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염불보권문』은 각 이본에 따라 구성 및 내용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용문사본과 동화사본의 목차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¹⁰⁾

-
- 6) 김중진, 「<회심가>의 컨텍스트와 작가론적 전망」, 『불교가사의 계보학, 그 문화사적 탐색』(서울: 소명출판, 2009), p.81.
 - 7) “康熙甲申春 慶尙左道 醴泉龍門寺 淸虛後裔 明衍集.” 『韓佛全』 9, p.44b.
 - 8) 기성 쾌선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종수, 「18세기 기성쾌선의念佛門 연구- 염불문의 禪敎 껴안기」, 『보조사상』 제30집(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8), pp.149-154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 9) 김중진, 위의 논문, p.93.
 - 10) 논의의 편의상, 현전 판본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명연의 「大彌陀懺器抄要覽普勸念佛文序」와, 시주

<표2> 용문사본과 동화사본의 구성 비교

| | 예천 용문사본(1704) | 대구 동화사본(1764) |
|----|----------------------------------|---|
| 1 | 諸佛不如阿彌陀佛 | 諸佛不如阿彌陀佛 |
| 2 | 念諸佛不如念阿彌陀佛 | 念諸佛不如念阿彌陀佛 |
| 3 | 諸國世界不如西方極樂世界 | 諸國世界不如西方極樂世界 |
| 4 | 極樂世界七寶池中有九品蓮花臺 | 極樂世界七寶池中有九品蓮花臺 |
| 5 | 勸他念佛同生西方 | 勸他念佛同生西方 |
| 6 | 有緣奉佛無緣毀佛 | 有緣奉佛無緣毀佛 |
| 7 | 有信有益無信無益 | 有信有益無信無益 |
| 8 | 貪世事人不知念佛大樂 | 貪世事人不知念佛大樂 |
| 9 | 烏長國王見佛往生 | 烏長國王見佛往生 |
| 10 | 世子童女勸母往生 | 世子童女勸母往生 |
| 11 | 隋文皇后異香往生 | 隋文皇后異香往生 |
| 12 | 京兆房羸勸他往生 | 京兆房羸勸他往生 |
| 13 | 學士張抗持課往生 | 學士張抗持課往生 |
| 14 | 信士牧卿執幡往生 | 信士牧卿執幡往生 |
| 15 | 왕낭전이라 | 불계 파흔 중 응준니 과글리 주겨서 극낙 가다 헝시다 |
| 16 | 불계 파흔 중 응준니 과글리 주겨서 극낙 가다 헝시다 | 溫文靜妻辭親往生 |
| 17 | 淨源大師懺經節要跋 | 屠牛善和十念往生 |
| 18 | 念佛作法次序 | 왕낭전이라 |
| 19 | 溫文靜妻辭親往生 | 공각전이라 |
| 20 | 저리나 므의나 념불 권흔 후 바리라 | 승귀라 헝는 중이 명부에 잡떠가서 저근듯 념불헝고 지옥을 면헝니라 |
| 21 | 屠牛善和十念往生 | 저리나 므의나 념불 권흔 후 바리라 |
| 22 | 流傳記 | 念佛作法次序 |
| 23 | 식당작법 | 니 발원문 외오는 사름은 다 극낙세계 가 오리다 |
| 24 | 서가부테님십대발원문 | 나옹화상서왕가라 |
| 25 | 니 발원문 외오는 사름은 다 극낙세계 가 오리다 | 인과문 |
| 26 | 나옹화상서왕가 | 大佛頂首楞嚴神呪 |
| 27 | 인과문 | 관음보살즈직여의논주 |
| 28 | 大佛頂首楞嚴神呪 | 流傳記 |

질·간기는 <표2>와 <표3>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한문원문과, 그 언해문 또는 한글음 표기가 모두 전하고 있는 경우는 한문 제목만을 명시하였고, 한글 제목은 한글로만 표기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溫文靜妻辭親往生」과 「屠牛善和十念往生」은 한문원문 없이 언해문만 실려 있지만, 원전에 있는 그대로 한문 제목을 적었다.

| | 예천 용문사본(1704) | 대구 동화사본(1764) |
|----|---------------|---------------|
| 29 | 관음보살조지여의눈주 | <u>臨終正念訣</u> |
| 30 | | <u>父母孝養文</u> |
| 31 | | <u>회심가고</u> |
| 32 | | <u>維摩經</u> |
| 33 | | <u>王郎返魂傳</u> |

위의 <표2>를 통해, 용문사본이 동화사본으로 복각되면서 달라진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곧 동화사본은 용문사본의 「정원대사참경절요발」·「식당작법」·「서가부테님십대발원문」을 삭제한 대신, 수도사본의 「임종정념결」·「부모효양문」과 「공각전이라」·「승귀라 흐는 중...」·「회심가고」·「유마경」·「왕랑반혼전」 등의 7편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각편의 배열에 있어서는, <표2>의 15번 이후부터 그 순서를 바꾸고 있다. 그런데 용문사본의 「서가부테님십대발원문」은 도표에 표시하지 않았지만, 사실 동화사본의 ‘염불작법차서’에 「여래십대발원문」으로 제목만 바뀌어 실려 있다. 그렇다면 동화사본은 상봉 정원의 발문과, 대중공양의 의식절차인 「식당작법」만을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이 두 편을 제외한 용문사본의 내용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판본에 공통적으로 실린 글들은 한글표기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그 내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동화사본에 새로 편입된 글들의 경우는 용문사본과 조금은 다른 내용 및 성격을 보인다. 용문사본은 각편의 배열 순서와 상관없이 여러 경전에서 뽑은 글과 『미타참법』 소재의 왕생담, 그리고 염불의식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염불·왕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동화사본의 추가분은 경전과 『미타참법』이 출전이 아니거나, 염불·왕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글들을 포함하고 있다.

「임종정념결」·「부모효양문」은 극락왕생을 위한 구체적인 염불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각각 당나라의 선도(善導)와 송나라의 종색(宗績)이 지은 것이다. 그리고 「유마경」은 해당 경전 중, ‘담악초(痰惡草)’가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부처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염불·왕

생과 관련이 없다. 「공각전이라」 역시 염불·왕생과 관련이 없는데, 주인공인 공각은 소·오리·달걀을 먹은 죄로 명부(冥府)에 끌려갔다가, 7일 동안 복을 닦아 즐거운 곳에 태어나라는 명관(冥官)의 명령으로 환생하고 있는 것이다. 「승귀라 흐는 중…」의 경우는, 병 없이 횡액으로 죽어 명부에 끌려간 승규가 어떤 사람의 권유대로 일심으로 염불하자, 평생에 지은 죄가 없어졌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염불의 공덕을 강조한 것이지만, ‘왕생’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염불하여 극락왕생한 사람들의 전기인 용문사본 소재 왕생담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동화사본에 새로 추가된 글들은 ‘보유편’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용문사본 수록 글들의 배열순서가 동화사본에서 달라진 이유는, 무엇보다 <표2>의 8번과 9번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아래의 기록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1) 이상은 여러 경론의 글에서 요지를 대략 가려 뽑아서 사람들에게 널리 권한 것이다. 이하는 대미타참문에서, 과거에 서방에 염불하여 왕생한 열 사람의 전기를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베껴 소개하고 언문으로 해석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염불을 권한 것이다.¹¹⁾

인용문(1)은 용문사본과 동화사본 뿐만 아니라 다른 판본들에서도 「탐세사인부지염불대략」과 「오장국왕견불왕생」 사이에 명기되어 있다. 위의 (1)에서 명연은 <표2>의 1~8번의 글들이 여러 경론에서 뽑은 것이고, 9번 이하 10편의 글들은 왕자성의 『미타참법』이 그 출전임을 밝히고 있다.¹²⁾ 그러나 정작 자신이 편찬한 용문사본에서 『미타참법』 소재의 왕생담은 이 기록대로 배열되어

11) “此上諸經論文 畧抄要覽 普勸諸人 以下大彌陀懺文 昔日念佛往西方十人傳記 一字不改 專出寫示以諺字 兼出解釋 又勸諸人念佛.” 『韓佛全』 9, p.50c. 이하 인용문의 번역은 대체로 정우영·김종진 옮김, 『염불보권문』(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의 해당 부분을 따른 것임을 밝힌다.

12) 실제로 1~8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각편은 경전에서 발췌한 것으로, 논서에서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용문사본에 수록되어 있는 10편의 왕생담 중, 「왕낭전이라」는 『미타참법』에 실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곧 16·19·21번의 이야기는 각각 출전이 다른 글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동화사본은 용문사본의 목차를 따르지 않고, 이 인용문(1)의 기록에 의거하여 왕생담들을 한곳에 모은 뒤 차례대로 배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동화사본은 ‘[1] 여러 경전에서 발췌한 글(1-8번), [2] 『미타참법』 수록 왕생담(9-17번)과 그 보유편(18-21번), [3] 「염불작법차서」와 염불의식 때 사용하는 노래·진언(22-28번), [4] [1]·[3]의 보유편(29-33번)’이라는 구성 및 배열 순서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동화사본의 체재와 각편의 배열순서는 아래의 <표 3>에서 보듯이, 이후 간행되는 판본들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표3> 흥률사본·묘향산 용문사본·해인사본의 구성 비교

| | 흥률사본(1765) | 묘향산 용문사본(1765) | 해인사본(1776) |
|----|------------------------------|----------------|------------------------------|
| 1 | 弟子宗本生于四明陳氏承感 | 歸依三寶篇 | 阿彌陀佛因行 |
| 2 | 呂洞賓悟道頌 | 決定往生淨土眞言 | 諸佛不如阿彌陀佛 |
| 3 | 白樂天頌 | 阿彌陀佛本心微妙眞言 | 念諸佛不如念阿彌陀佛 |
| 4 | 宋相無盡居士 | 諸佛不如阿彌陀佛 | 諸國世界不如西方極樂世界 |
| 5 | 護諸童子陀羅尼經 | 念諸佛不如念阿彌陀佛 | 極樂世界七寶池中有九品蓮花臺 |
| 6 | 念諸佛不如念阿彌陀佛 | 諸國世界不如西方極樂世界 | 勸他念佛同生西方 |
| 7 | 諸國世界不如西方極樂世界 | 極樂世界七寶池中有九品蓮花臺 | 有緣奉佛無緣毀佛 |
| 8 | 極樂世界七寶池中有九品蓮花臺 | 勸他念佛同生西方 | 有信有益無信無益 |
| 9 | 勸他念佛同生西方 | 有緣奉佛無緣毀佛 | 貪世事人不知念佛大樂 |
| 10 | 有緣奉佛無緣毀佛 | 有信有益無信無益 | 烏長國王見佛往生 |
| 11 | 有信有益無信無益 | 貪世事人不知念佛大樂 | 世子童女勸母往生 |
| 12 | 貪世事人不知念佛大樂 | 烏長國王見佛往生 | 隋文皇后異香往生 |
| 13 | 烏長國王見佛往生 | 世子童女勸母往生 | 京兆房羈勸他往生 |
| 14 | 世子童女勸母往生 | 香山白樂天讚誓法門 | 學士張抗持課往生 |
| 15 | 隋文皇后異香往生 | 唐李太白讚序法門 | 信士牧卿執幡往生 |
| 16 | 京兆房羈勸他往生 | 蘇東坡讚法門 | 불계 파흔 중 응준니 과글리 주겨서 극낙가다 흐시다 |
| 17 | 學士張抗持課往生 | 隋文皇后異香往生 | 溫文靜妻辭親往生 |
| 18 | 信士牧卿執幡往生 | 京兆房羈勸他往生 | 屠牛善和十念往生 |
| 19 | 불계 파흔 중 응준니 과글리 주겨서 극낙가다 흐시다 | 學士張抗持課往生 | 저리나 므으리나 념불 권흔 후 바리라 |
| 20 | 溫文靜妻辭親往生 | 信士牧卿執幡往生 | 念佛作法次序 |

| | 흥률사본(1765) | 묘향산 용문사본(1765) | 해인사본(1776) |
|----|----------------------|------------------------------|---------------------------|
| 21 | 屠牛善和十念往生 | 불계 파흔 중 응준니 과글리 주겨서 극낙가다 흐시다 | 니 발원문 외오논 사름은 다 극낙세계 가오리다 |
| 22 | 덜이나 므을이나 념불 권흔 후 발이라 | 溫文靜妻辭親往生 | 나옹화상셔왕가라 |
| 23 | 念佛作法次序 | 屠牛善和十念往生 | 인과문 |
| 24 | 王郎返魂傳 | 念佛作法次序 | 大佛頂首楞嚴神呪 |
| 25 | 抄出維摩經禁南草說 | 니 발원문 외오논 사름은 다 극낙세계 가오리다 | 관음보살즈직여의눈썹 |
| 26 | 님종정념결 | 나옹화상셔왕가라 | 流傳記 |
| 27 | | 大佛頂首楞嚴神呪 | 臨終正念訣 |
| 28 | | 관음보살즈직여의눈썹 | 父母孝養文 |
| 29 | | 父母孝養文 | 회심가고 |
| 30 | | 慶談流通 | 維摩經 |
| 31 | | 高聖念佛有十種功德 | 玄氏行跡 |
| 32 | | 회심가고 | 王郎返魂傳 |
| 33 | | 維摩經 | |

<표3>은 흥률사본·묘향산본·해인사본의 목차를 제시한 것이다.¹³⁾ 선운사본은 해인사본의 목차와 일치하므로 생략하였다. 이들 판본은 동화사본의 배열 순서를 따르면서도, 「왕낭전이라」·「공각전이라」·「승귀라 흐논 중…」의 3편을 모두 삭제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리고 해인사본은 「아미타불인행」과 「현씨행적」만을 새로 추가했을 뿐, 동화사본의 체재 및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률사본은 동화사본의 「제불불여아미타불」·「니 발원문 외오논…」·「유전기」·「나옹화상셔왕가라」 등의 9편을, 묘향산본은 「저리나 므으리나…」·「인과문」·「유전기」 등의 5편을 삭제하고 있다. 특히 흥률사본은 「염불작법차서」를 제외한 모든 염불의식문을 수록하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이들 판본에서 삭제된 「제불불여아미타불」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염제불불여염아미타불」과 그 주지에서 일치하고, 「니 발원문 외오논…」·「유전기」·「저리나 므으리나…」의 3편은 유사한 내용 및 구절이 반복되어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해당 판본의

13) 해인사본은 두 계열의 이본 가운데, 선운사본과 그 구성 및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일사문고·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목차를 제시하였다.

편자들은 이들 각편이 서로 중복되어 있다는 판단에서, 한 편의 글만 남기고 나머지 글들은 실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홍률사본과 묘향산본에서 새로 추가된 글들은 각각 「제자종본생우사명진 씨승감」·「여동빈오도송」·「백낙천송」 등의 5편과, 「귀의삼보편」·「향산백낙 천찬서법문」·「당이태백찬서법문」·「소동파찬법문」 등의 8편이다. 이들 각편은 동화사본의 추가분과 마찬가지로, 경전이 출전이 아닌 글이거나 염불·왕생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들 역시 ‘보유편’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는데, 『염불보권문』의 ‘보유편’은 III장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실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되는 『염불보권문』의 체제 및 구성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제1부: 여러 경전에서 뽑은 글

- ① 諸佛不如阿彌陀佛 ② 念諸佛不如念阿彌陀佛 ③ 諸國世界不如西方極樂世界 ④ 極樂世界七寶池中有九品蓮花臺 ⑤ 勸他念佛同生西方 ⑥ 有緣奉佛無緣毀佛 ⑦ 有信有益無信無益 ⑧ 貪世事人不知念佛大樂

• 제2부: 극락왕생한 사람들의 이야기

- ⑨ 烏長國王見佛往生 ⑩ 世子童女勸母往生 ⑪ 隋文皇后異香往生 ⑫ 京兆房羸勸他往生 ⑬ 學士張抗持課往生 ⑭ 信士牧卿執幡往生 ⑮ 불계 파흔 중 응준 이... ⑯ 溫文靜妻辭親往生 ⑰ 屠牛善和十念往生 ⑱ 저리나 므으리나 넘불 권흔 후 바리라

• 제3부: 염불의식문

- ⑲ 念佛作法次序 ⑳ 니 발원문 외오논 사툼은... ㉑ 나옹화상서왕가라 ㉒ 인과문 ㉓ 大佛頂首楞嚴神呪 ㉔ 관음보살주지여의눈주 ㉕ 流傳記

• 제4부: 보유편

- ㉖ 臨終正念訣 ㉗ 父母孝養文(이상 수도사본) ㉘ 회심가고 ㉙ 維摩經 ㉚ 王郎返魂傳 ㉛ 공각전이라 ㉜ 승귀라 흐는 중이...(이상 동화사본) ㉝ 弟子宗本生于四明陳氏承感 ㉞ 呂洞賓悟道頌 ㉟ 白樂天頌 ㊱ 宋相無盡居士 ㊲ 護諸童子陀羅尼經(이상 홍률사본) ㊳ 歸依三寶篇 ㊴ 決定往生淨土眞言 ㊵ 阿彌陀佛

本心微妙眞言 ㉑ 香山白樂天讚誓法門 ㉒ 唐李太白讚序法門 ㉓ 蘇東坡讚法門
 ㉔ 慶讚流通 ㉕ 高聲念佛有十種功德(이상 모향산본) ㉖ 阿彌陀佛因行 ㉗ 玄
 氏行跡(이상 해인사본)

인용문의 제1~3부는 각편의 배열순서가 다를 뿐, 원간본인 용문사본의 내용에 해당하고, 제4부는 용문사본 이외의 판본들에서 새로 추가된 글들을 간행연대의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이제, 『염불보권문』의 구체적인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볼 차례이다.

III. 텍스트의 구성과 내용적 경향성

『염불보권문』의 제1부는 『대집경』·『관무량수경』·『대아미타경』 등의 여러 경전에서 발췌한 8편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8편의 글들은 그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염불과 극락왕생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여러 경에서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삼천불 가운데 서방의 아미타불이 제일 존귀하신 부처님이다.” 하셨고, 또 서방의 모든 세계 모든 부처님께서도 “아미타불이 제일이시다.”라고 찬양하셨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기를 “말세에 선남자 선여인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열 번 소리 내어 염송하는 이는 비록 극악한 중죄를 지었더라도 지옥의 무거운 고통에서 벗어나 구품연화대에 왕생하여 모두 함께 성불할 수 있다.”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보다 뛰어나다고 하신 것이다.¹⁴⁾

위의 (2)는 제1부의 첫 번째 글인 「제불불여아미타불」의 전문이다. 이 글에서 화자는 ‘제경(諸經)’을 인용하여, 여러 부처들 가운데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

14) “諸經釋迦佛云三千諸佛中西方阿彌陀佛第一尊佛又十方諸世界諸佛皆讚云阿彌陀佛第一是故經云末世若善男子善女人得聞阿彌陀佛名號十聲念誦者雖造極惡重罪能免地獄之重苦當生九品之蓮臺咸皆成佛故猶勝於諸佛也.” 『韓佛全』 9, p.45a.

타불이 가장 뛰어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념(稱念)하면 극락세계의 구품 연화대에 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경문(經文)을 제시하고 있다.

②「염제불불여염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념하는 공덕이 여러 부처들의 이름을 부르는 공덕보다 뛰어나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그 이유로 ‘왕생’과 ‘성불’을 들고 있다. 다만 이 글에는 임종 때 염불하면 아미타불 및 여러 보살들이 극락세계로 인도하며, 여자가 극락에 왕생하면 남자가 되어 곧바로 불과(佛果)를 이룬다는 서술¹⁵⁾이 부연되어 있다. ①·②의 두 편은 ‘칭명염불’의 뛰어남과 그 이유를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칭명염불의 뛰어난 공덕으로 제시된 ‘왕생’과 ‘성불’은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염불을 해야 하는 이유 내지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대아미타경』이 출전인 ③「제국세계불여극락세계」는 극락세계의 장엄상과 왕생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후자의 비중이 큰데, 아미타불의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옷과 밥이 저절로 생기고, 영원히 생사윤회를 끊어 모든 즐거움을 받으며, 천지간의 모든 일들을 훤히 알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¹⁶⁾ 왕생인이 얻는 이러한 이익은 편자 자신의 언급은 아니지만, 이 글의 끝부분에 있는 “그 쾌락을 견줄 바가 없으니, 어찌 왕생하지 않으리오.(快樂無比 盍願往生)”라는 구절을 통해, 극락세계에 왕생해야 하는 이유로 읽히게 된다.

(3) 『무량수경』에 이르시기를 “상삼품에 왕생하는 자라. 만약 불경에 능통하고 계행을 다 갖추고 세상일에 욕심내지 아니하며 만 가지 선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가고자 하면, 목숨을 마칠 때에 아미타불과 여러 성중이 내려와 맞이하여 손가락 한 번 튀길 사이에 극락으로 인도하리라. ①연꽃 속으로 들어가 3일이 지나면 연꽃 봉오리가 몸이 되어 태어나며, 32상의 몸을 모두 갖추고, 설법을 듣자마자 생사윤회를 영원히 끊고 마음과 뜻이 시원하게 밝아져 곧 불과를 이루고, 신통하고 자재로

15) 『韓佛全』 9, p.45b.

16) 『韓佛全』 9, p.46a.

위 만사가 능통하니 어찌 꾀하지 않으리오.” 하셨다.¹⁷⁾

인용문 (3)은 ④「극락세계칠보지증유구품연화대」의 상삼품·중삼품·하삼품 중, ‘상삼품’의 전문이다. 인용문에 따르면 이 ④는 『무량수경』이 출전으로 되어 있지만, ‘상삼품·중삼품·하삼품’의 용어는 『무량수경』에 없는 것이고, 위의 밑줄 친 ㉠ 역시 『무량수경』의 관련 구절과 차이를 보인다. 곧 『무량수경』 하권에는 ‘상배(上輩)·중배·하배’의 용어가 있고, 인용문의 ㉠에 해당하는 『무량수경』의 경문은 “일곱 가지 보배로 된 연꽃 가운데 저절로 화생하여 불퇴전의 경지에 머물며, 지혜와 용맹을 갖추고神通력 또한 자재하게 된다.”¹⁸⁾로 되어 있다.

『무량수경』의 이 경문에는 왕생인이 연꽃 속으로 들어가 3일이 지난 뒤에 32상의 몸을 갖춘다는 언급이 전혀 없고, 왕생인은 ‘불과’가 아닌 ‘불퇴전의 경지’에 머무르는 것이다. 오히려 ㉠의 이 언급과 ‘상삼품’의 용어는 『관무량수경』에 보이지만,¹⁹⁾ 『관무량수경』에도 극락에 왕생하여 바로 불과를 이룬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상삼품의 왕생 방법 또한 『무량수경』과 차이가 있다. 인용문(3)은 왕생의 방법 내지 이유로, ‘불경에 능통함·계법을 행함·세간탐심이 없음·보시선사를 행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²⁰⁾ 이에 반해, 『무량수경』에는 “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사문이 되어 보리심을 내어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량수불을 생각하며, 선근 공덕을 쌓는 것”²¹⁾으로 되어 있다.

17) “無量壽經云 上三品往生者 若有人能通佛經 具持戒行 不貪世事 能行萬善人 願生彼國 則命終時 阿彌陀佛 與諸聖衆來迎 一彈指間 引導極樂 入蓮花中 過三日後 以蓮胎爲身而出 則三十二相身形具足 卽聞說法生死 永絕 心痛意明 卽成佛果 神通自在 萬事能通 豈不快哉.” 『韓佛全』 9, p.47a.

18) “便於七寶華中自然化生 住不退轉 智慧勇猛 神通自在.” 康僧鑑 譯, 『佛說無量壽經』 下卷(『大正藏』 12, p.272b).

19) “上品下生者 …(中略)… 卽自見身坐金蓮花 坐已華合 隨世尊後卽得往生七寶池中 一日一夜蓮花乃開 七日之中乃得見佛 …(中略)… 於諸佛前聞甚深法 經三小劫得百法明門 住歡喜地.” 璽良耶舍 譯, 『佛說觀無量壽經』(『大正藏』 12, p.345a-b).

20) 참고로, 인용하지 않은 ‘중삼품’은 왕생의 방법으로 보시선사·부모효양·불경을 믿고 들음·술과 고기를 먹지 않음·살생하지 않음을, ‘하삼품’은 날마다 새벽에 나무아미타불을 10번하거나, 임종시에 나무아미타불을 10번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1) “其上輩者 捨家棄欲 而作沙門 發菩提心 一向專念無量壽佛 修諸功德.” 康僧鑑 譯, 『佛說無量壽經』 下卷

출전으로 명시한 『무량수경』과의 차이점은 인용하지 않은 ‘중삼품’·‘하삼품’에도 해당되는데, 이러한 점은 ‘왕생의 이유 내지 결과’로서의 ‘성불’을 강조하기 위한 편자의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용문의 ㉠에 대응되는 언해문은 “사흘만에 년곳티 띄면 나셔 아미타불 설법을 듯고 즉재 부테 되어”라고 하여, 한문원문보다 더욱 ‘성불’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구절은 ‘중삼품’·‘하삼품’의 끝부분에도 반복되어 나타나 있다. 이상의 사실은, 『염불보권문』의 제1부에 수록된 글들이 명시된 출전 그대로의 발췌가 아니라, 편자의 일정한 의도를 반영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⑤ 「권타염불동생서방」은 그 제목대로, 다른 사람에게 염불을 권하면 자신도 염불한 것에 견줄 수 있고, 그 공덕으로 극락에 왕생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의 끝부분에는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덧붙여 있다. “어떤 사람이 등축으로 아미타불을 공양하면 곧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시어 임종 시에 극락에 나셔 시방세계를 두루 꿰뚫어 볼 것이니라.”²²⁾와, “『법화경』에 이르시기를, ‘한 번이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자는 모두 불도를 이루리라.’라고 하셨다.”²³⁾가 그것이다. 이 언급들은 ‘권타염불’이 아닌, ‘등축공양’과 ‘칭명염불’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서 ‘등축공양’과 ‘칭명염불’은 각각 왕생과 성불의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들 인용문으로 인해, 이 글의 주지는 ‘왕생과 성불의 방법’이 되고, ‘권타염불’ 또한 왕생의 방법으로 서 제시한 것이 된다. 그리하여 이 ⑤는 앞의 ③·④와 함께 ‘왕생·성불의 이유와 방법’이라는 주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⑥ 「유연불불무연혜불」은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염불과 왕생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대신 편자는 ‘불법’을 믿을 것을 강조하면서, “불법을 받들어 믿는 것은 성인의 길에 들어가는 인연이 되고 불법을 훼방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바탕이 된다.”²⁴⁾라는 경문을 옮기고 있다. 또한 편자 자신의 발화로,

(『大正藏』 12, p.272b).

22) “若人燈獨 供養阿彌陀佛 則諸佛歡喜 命終生於極樂 徹見十方世界.” 『韓佛全』 9, p.48a-b.

23) “法華經云 一稱南無佛者 皆以成佛道.” 『韓佛全』 9, p.48b.

24) “奉佛者 入聖道之因 毀佛者 入地獄之本.” 『韓佛全』 9, p.48c.

“말세에 승려나 속인 모두 기꺼이 마음과 불도를 닦으려 하지 않고, 세간의 재물을 탐내어 지옥에 들어가는 이는 많고 서방에 왕생하는 이가 적음”²⁵⁾을 한탄하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극락왕생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지옥행의 이유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용문의 ‘성인’·‘서방왕생’이라는 어휘를 통해,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불법’·‘불도’가, 지금까지 살펴본 ①~⑤의 ‘염불하면 왕생·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 곧 ‘염불법문(念佛法門)’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⑥은 지옥과의 대비를 통해, 염불법문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⑦「유신유익무신무익」은 “신심으로 능히 불도를 이룰 수 있다.”²⁶⁾라는 『대화엄경』의 문구로 시작하여, “늘 마음을 서방으로 향하여 아미타불을 염하라. 이른바 염불하는 사람은 귀신도 해치지 못하고 시왕도 감히 부르지 못하리라.”²⁷⁾라는 경문으로 끝맺고 있다. 후자의 존재로 인해 전자의 ‘신심’은 ‘염불’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 바로 앞의 ⑥에서 당부했던 ‘염불법문’에 대한 믿음으로 읽힐 수 있다.

(4) [가] 『나선경』에 말하였다. “국왕이 나선에게 물기를 ‘스님은 세상 사람이 평생 악을 행하다가 임종 시에 나무아미타불을 열 번 염하면 죽어서 서방에 난다 하셨는데,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나선이 답하기를 ‘비유하자면 큰 돌을 배에 실을 때 배의 힘으로 인하여 물에 빠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기를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때 염불하면 곧 지옥을 면하고 곧장 서방에 왕생할 수 있다.” 하신 것이다.

[나] 또 이른바 자력과 타력에 대해 말하리라. 혹 여러 선업을 행하여 성불하고자 하는 것은 자력이니, 마치 나무를 심어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아서 성불함이 더디다. 혹 염불하여 성불하는 것은 ‘타력’이

25) “末世僧也俗也 不肯修心修道 貪求世間物慾 故入地獄者居多 往西方者居小.” 『韓佛全』 9, p.48c.

26) “大華嚴經云 信心能成佛道.” 『韓佛全』 9, p.49a.

27) “時時心向西方 而念阿彌陀佛 所謂念佛人 鬼神不能害 十王不敢召.” 『韓佛全』 9, p.49a.

니, 마치 배를 빌려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아서 성불함이 빠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기를 “삼천 냥을 보시한 공덕이 아미타불을 한번 염한 공덕만 못하다.” 하였으니,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을지라.²⁸⁾

인용문 (4)는 제1부의 마지막 글인 ⑧ 「탐세사인부지염불대락」의 일부이다. 이 글은 ①~⑦의 핵심 내용을 반복·강조하면서 제1부를 마무리하는 결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용문의 [가]는 ‘십념(十念)’만으로 극락왕생이 가능한 이유를, 배의 힘 때문에 배에 실린 큰 돌이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나]의 경우는 염불하면 성불하기 쉬운 이유를, 배를 빌려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듯, 인용문 (4)는 앞의 ①·②에서 ‘염불의 이유’로 제시하고, ③~⑤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하였으며, ⑥·⑦에서 실천하고 믿을 것을 당부했던 ‘왕생’과 ‘성불’을, 배의 비유를 통해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제목의 ‘염불대락’은 바로 이 왕생과 성불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편자는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인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을지라.’의 언급을 통해, 제1부에서 서술한 ‘염불법문’이 ‘부처님의 말씀[佛語]’에 근거한 것임을 재차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반드시 믿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염불보권문』의 제1부는 ‘염불의 이유[왕생·성불](①·②)→ 왕생·성불의 이유와 방법(③·④·⑤)→ 염불법문에 대한 믿음(⑥·⑦·⑧)’의 내용 전개를 보이고, 그 결과 ‘왕생과 성불의 강조’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독자들이 염불을 해야 하는 이유로, 왕생 이외에 ‘성불’을 내세우고 있는 점은 『염불보권문』의 특징적인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의식은 사실, 명연의 서문에 이미 나타나 있다.

28) “那先經云 國王問那先道僧言 世人平生作惡 命終時 十念南無阿彌陀佛 死生西方 我不信是言 那先答云 比如大石載船 則因舟力故不沒 故經云 人雖極惡 一時念佛 則能免地獄 直往西方 又所謂自力他力 或行諸善 而欲成佛者 是自力 如種樹作船越海 成佛遲也 或爲念佛而成佛者 是他力 如借船越海 成佛速也 故經云 三千兩布施之功 又不如一念阿彌陀佛之功也 信聽佛語。” 『韓佛全』 9, p.49c.

(5) 말세의 여러 사람들은 아는 것이 적고 의심이 많아 두루 알지 못하고, 또 염불의 큰 이익을 알지 못해 세간의 물욕에만 탐내고 집착한다. 이에 내가 좁은 소견이지만 여러 경의 말씀을 대략 가려 뽑아 염불문을 만들고 언문으로 해석을 하여 선남선녀가 쉽게 통달하여 알도록 하였다. 잎을 따서 뿌리를 찾고 거친 곳에서 정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경에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염하는 자는 능히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 서방극락에 곧장 왕생하여 모두 불도를 이룬다.”고 하였고, 또 “남에게 염불을 권하면 스스로 염불하지 않더라도 함께 극락에 왕생한다.”고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염불을 권하여 함께 서방정토에 가고자 한다.²⁹⁾

위의 (5)는 서문의 끝부분을 옮긴 것이다. 인용문에서 명연은 말세의 사람들이 염불의 큰 이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염불보권문』을 편찬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책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염불을 권하는 근거로, 밑줄 친 부분의 두 가지 경문을 제시하고 있다. ‘나무아미타불’ 즉 칭명염불을 하면 극락에 왕생하여 모두 성불한다는 내용과, 남에게 염불을 권하면 내가 염불하지 않더라도 함께 왕생한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이 두 경문을 통해, 명연이 말했던 말세의 사람들이 모르는 ‘염불의 큰 이익’은, 바로 제1부의 전체에 걸쳐 강조되었던 ‘왕생’과 ‘성불’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왕생과 성불의 강조’라는 제1부의 주제의식은 보유편을 제외한, 『염불보권문』 전체의 주제의식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염불보권문』의 제2부는 9편의 왕생담과, 편자인 명연이 지은 「저리나 므으리나 념불 권훈 후 바리라」로 구성되어 있다. 9편의 왕생담은 『미타참법』 권4의 「왕생전록(往生傳錄)」 제4가 그 출전이다. 왕자성은 「왕생전록」의 서두에서, “극락으로 가는 길을 알고자 한다면 우선 왕생한 사람들의 발자

29) “末世諸人 少知多疑 不能通知 亦不知念佛之大有益 貪着世間之物慾也 我以管見 畧抄諸經之說 以爲念佛之文 且以諺書解釋 使善男善女 易通易知 摘葉尋根 由粗入精 故經云 一念南無阿彌陀佛者 能免生死之苦海 直往西方之極樂 皆成佛道 亦所謂勸他念佛 則自不念佛 而同生極樂 由是普勸諸人念佛 咸歸西方淨土。” 『韓佛全』 9, p.44a-b.

취를 살펴봐야 한다.(欲知安養路 先看往生人)³⁰⁾라고 전제한 뒤, 『고승전』·『왕생전』·『법원주립』 등에서 옮겨온 34편의 이야기들을, ‘비구(10편)·비구니(4편)·우바새(7편)·우바이(8편)·악업인(5편)’ 등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극락왕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염불의 현세 이익에 관한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다. 주인공이 염불을 하여 오랫동안 앓았던 병이 낫거나, 원귀(冤鬼)의 시달림이나 짐승들의 공격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왕생담에 있어서는 칭명염불뿐만 아니라, ‘관상염불(觀想念佛)’과 관련된 내용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염불보권문』의 제2부는 「왕생전록」의 현세 이익과 관상염불 관련 이야기는 모두 배제하고, 칭명염불과 관련된 왕생담만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왕생전록」의 비구·비구니 항목을 제외한 세 항목에서 각각 4편·3편·2편의 왕생담을 가려 뽑았는데, 그 제목과 내용은 일치하지만 배열순서는 차이를 보인다. 제2부의 ⑨「오장국왕견불왕생」·⑫「경조방저권타왕생」·⑬「학사장항지과왕생」·⑭「신사목경집변왕생」은 「왕생전록」의 우바새 항목에 있던 것이고, ⑩「세자동녀권보왕생」·⑪「수문황후이향왕생」·⑯「온문정처사친왕생」은 우바이, ⑮「불계 파흔 중 응준이…」·⑰「도우선화십념왕생」은 악업인 항목에 실려 있던 것이다. 이들 왕생담 앞의 일련번호가 보여주듯이, 『염불보권문』은 「왕생전록」의 분류 항목 및 배열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제2부의 왕생담들은 주인공의 신분과 성별에 따라, ‘왕실(⑨·⑩·⑪)→사민(士民)(⑫·⑬·⑭)→비구(⑮)→부녀자(⑯)→천민(⑰)’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⑫의 왕생담은 「왕생전록」에서는 ⑬·⑭의 뒤에 수록된 것인데, 명연은 ‘사민’ 항목의 맨 처음에 배치하고 있다. 3편의 왕생담 중, 살던 시대가 가장 늦고 평민이 주인공인 이 ⑫를 앞세운 것은, 염불이 송경(誦經)·예불(禮佛)보다 그 공덕이 뛰어나다는 등장인물의 발화³¹⁾와, 다른 사람에게 염불을 권하기만 해도 왕생할 수 있다는 이 글의 주지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의 인

30) 王子成, 『禮念彌陀道場懺法』 권4, 「往生傳錄」 제4(『卍新纂大日本續藏經』 74, p.92a).

31) “曩日 先許金剛經萬卷 巡五臺 未欲往生 閻羅王曰 誦經巡禮 固爲好事 不如早生淨土.” 『韓佛全』 9, p.52a.

용문(5)에서 이미 보았듯이, 편자인 명연은 왕생·성불과 함께 ‘권타염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2부의 왕생담들은 주인공이 극락에 왕성한 이유로 모두 칭명염불을 제시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렇지만 몇몇 왕생담에는 칭명염불과 함께 다른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보시·승재(僧齋)’(⑨), ‘권염불’(⑩·⑫·⑬), ‘천수경 송경(誦經)’(⑬), ‘지계(持戒)’(⑭), ‘부모효양’(⑯) 등이 그것으로, 여기에서도 명연이 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권타염불’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6) [다] 딘서 못흐고 언문흐는 사름을 위흐야 김픈 경에 쓰들 언문으로 써내야서 대도 념불홀 줄 알고 념불 동참흐야 서방 극낙세계 가게 권흐되다. 또 아미타불만 념흐기 적다 예기지 마로쇼셔. 불경을 만히 본 중도 아미타불과 관음보살을 낮밤 업시 념흐느니다. 또 참선과 불경 보기는 대도 못흐려니와 이 칙을 보면 념불흐기는 저리나 므의나 모다 보게 흐되다. 의심 말고 또 다른 잡예아기칙을 보지 말고 이 칙을 흐번이나 듯거나 보거나 흐 사름은 다 극낙세계 가오리다.

[라] 또 서방 가기 어렵다 니르디 마시소. 낙간 념불흐야도 다 가리라 흐시고, 극낙세계 간 사름은 다 부테 되난다 흐시며, 또 부테 되면 엇저흐고. 전전심일과 천디 만물스를 다 알고 신통지간은 빅만장군도 밋디 못흐고 병들며 주금도 면흐다 흐시니라. 슬프고 슬푸다. 사름마동 제 므옴미 실로 부테로디 내 므옴이 부테줄 아지 못흐고 부테되기 어렵다 흐느니, 브디 내 므옴미 부테줄 알고 악스를 말고 쇼양과 보시과 념불과 낙간 흐면 서 발원흐기를 서방 가고져 흐면 부테 되기 쉽다 흐시니라.³²⁾

(6)은 명연의 글인 ⑱「저리나 므의리나 념불 권흐 후 바리라」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인용문 [다]에서 명연은 “진서(眞書)를 못하고 언문(諺文)을 하는 사람”이 『염불보권문』의 일차적인 독자임을 밝힌 뒤, 이 책의 편찬 목적과 이익에

32) 『韓佛全』 9, p.54b-c.

대해 서술하고 있다. 곧 『염불보권문』은 한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에게 염불을 알리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이 책을 한 번이라도 보거나 그 내용을 들으면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의 경우는, 극락왕생의 결과로서의 ‘성불’의 이익과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명연은 성불의 이익으로, 전생과 천지간의 모든 일을 알 수 있고,神通한 능력을 갖게 되며, 병고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불의 방법으로는 효양·보시·염불과 왕생에 대한 발원을 들고 있는데, 이들 덕목은 왕생담들에서 이미 성불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기도 하다.

이상의 서술만으로도, 이 ⑱은 앞에서 살펴본 제1부의 ⑧과 그 내용 및 성격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글에는, ⑧을 포함한 1부 소재 몇몇 글들의 문구를 그대로 옮긴 부분도 있으며, 성불의 이익에 관한 [라]는 ③·④에서 제시한 ‘왕생인의 이익’·‘왕생의 결과’와 중복되는 내용이다. 결국, ⑨~⑰의 왕생담 뒤에 배치된 ⑱은 제2부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글의 존재로 인해 『염불보권문』의 제1부와 제2부는 ‘왕생과 성불의 강조’라는 동일한 주제의식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염불보권문』의 제3부는 염불의식의 절차를 모은 ⑲「염불작법차서」와, 염불의식 때 이 ⑲와 함께 사용하는 ㉑「나옹화상서왕가라」·㉒「인과문」·㉓「대불정수능엄신주」·㉔「관음보살조지여의눈썹진언」, 그리고 염불의식과 관련이 없는 ㉕「니 발원문 외오논 사름은…」·㉖「유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⑲「염불작법차서」는 다음과 같이 3편의 진언과 5편의 계송 및 1편의 발원문을 포함하고 있다. ‘㉗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㉘개경계(開經偈), ㉙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 ㉚천수천안관조지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신묘장구대다라니, ㉛도량계(道場偈), ㉜참회계(懺悔偈), ㉝찬불계(讚佛偈), ㉞왕생계(往生偈), ㉟여래십대발원문(如來十大發願文).’ 이들 중 ㉗~㉛·㉟와, 진언인 ㉚·㉜는 염불의식만이 아닌, 현재의 일반적인 불교의식에서도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전자는 모두 현행 『천수경』에 실려 있다.³³⁾ 그러므로 염불의식문으로서의 특징은 ㉜와 ㉞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7) 바라옵건대 함께 염불한 이들 모두 극락에 태어나 부처님을 뵈고 생사를 깨달아 부처님과 같이 일체중생을 제도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제가 임종할 때 일체의 모든 장애를 없애고 저 아미타불을 직접 뵈고 안락한 국토에 왕생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 널리 미쳐, 저희와 중생이 마땅히 극락에 태어나 모두 함께 무량수불을 뵈고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소서.³⁴⁾

인용문은 적지 않은 분량의 계송과 발원문으로 되어 있는 ㉔찬불계의 끝부분이다. 위의 (7)은 아미타불에 대한 예찬 및 귀의의 내용에 이어, 이 ㉔를 마무리하는 화자의 발원이다.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서 화자는 아미타불의 상호(相好)와 극락세계의 장엄, 그리고 48대서원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극락왕생하게 하는 공덕 등을 예찬한 뒤, 이러한 공덕을 베풀어 준 아미타불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³⁵⁾ 그리고 인용문 (7)에서는 화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중생이 극락에 태어나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성불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㉔의 바로 뒤에 있는 ㉕왕생계 역시, 극락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을 뵈고 나날 없이 일시에 성불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³⁶⁾

이렇듯, ㉔와 ㉕는 모두 왕생과 성불을 희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왕생·성불의 희구’는 제3부의 핵심 부분인 ㉑「염불작법차서」 전체의 주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염불보권문』은 경전과 왕생담을 근거로 염불의 이유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믿음을 권하는 제1·2부에 이어, 염불의식의 실제 행위를 통해 왕생과 성불을 희구하는 제3부를 배치함으로써, ‘왕생과 성불의 강조’라는 주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된다. 『염불보권문』의 제1·2부가 염불법문에 대한 ‘신(信)·해(解)’라고 한다면, 제3부는 ‘행(行)’에 해당한다고

33) 정각, 『천수경 연구』(서울: 운주사, 1996), p.134.

34) “願同念佛人 盡生極樂國 見佛了生死 如佛度一切. 願我臨欲命終時 盡除一切諸障礙 面見彼佛阿彌陀 卽得往生安樂刹.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當生極樂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韓佛全』 9, p.57c.

35) 『韓佛全』 9, pp.56c-57c.

36) “願往生願往生 願在彌陀會中座 手執香花常供養 願往生願往生 往生極樂見彌陀 獲蒙麻頂授記 願往生願往生 往生華藏蓮花界 自他一時成佛道.” 『韓佛全』 9, p.57c.

할 수 있다.

한편, ㉑ 「니 발원문 외오는 사름은…」은 제목만 본다면 ㉒ 여래십대발원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2부의 ㉓ 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곧 이 ㉑ 은 『염불보권문』의 편찬 이유와 이익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권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이 글에는 명연이 설정한 『염불보권문』의 독자층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인다. 곧 “양반 상인 중 거스 부인 사당 대도 내 묵음이 실로 성인 부텐줄 알고 비록 가지가지 만 가지 이를 흐면서도 서방 아미타불을 닛지 말고 념히시소.”³⁷⁾란 구절이 그것이다. 이 언급을 통해, 명연은 ㉓ 의 “진서를 못하고 언문을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양반·상인·승려·거사·부인·사당’ 등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염불보권문』을 편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3부의 마지막 글인 ㉔ 「유전기」는 그 간기에 따르면 명연이 아닌, ‘용문산인(龍門山人) 천인(天印)’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³⁸⁾ 제목처럼 이 글의 화자는 『염불보권문』의 유포를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염불하는 공덕은 임종할 때에 곧장 서방에 왕생케 하니 모두 성불의 과보이다. 이에 불과를 이루고자 하는 이가 이를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중략)… 경에 이르시기를 염불책을 베풀거나 전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면 곧장 극락에 가서 모두 성불한다고 하였다. 하물며 재물을 써서 책으로 펴내 전하고 게다가 책장을 넘겨보는 사람들에 있어서랴!”³⁹⁾

인용문에서 화자는 염불의 공덕을 ‘왕생’과 ‘성불’로 제시한 뒤, 성불을 위해서는 염불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제1·2부의 마지막 글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왕생과 성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37) 『韓佛全』 9, pp.60c-61a.

38) “歲在〇〇夏記 龍門山人 天印記”(김영배·정우영·김무봉 편, 『염불보권문의 국어학적 연구』(서울: 동악어문학회, 1996), p.562). 그러나 이 간기는 동화사본부터는 “歲在赤風暮春餘航山下 閑良朴思寅 盥手記寫”로 교체되었다.

39) “至如念佛之功 則臨死之時 直往西方 皆成佛果也 乃以欲成佛果者 舍此而奚適哉 …(中略)… 經云 念佛之冊 或施或傳 若見若聞 則逕投樂邦 皆以成佛也 而況用財印傳 兼可披閱者乎.” 『韓佛全』 9, p.61a.

㉕는 ㉘·㉙에서 더 나아가, 『염불보권문』의 편찬 및 유포의 목적이 중생의 ‘성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상, 『염불보권문』의 원간본에 해당하는 제1~3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서문부터 마지막 글까지 일관되게 ‘왕생’과 ‘성불’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염불보권문』의 내용적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제4부 보유편은 앞의 II장에서 언급했듯이, 용문사본 이후 간행된 판본들에서 새로 추가된 글들을 가리킨다. 이 ‘보유편’의 글들은 대부분 염불·왕생·성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홍률사본의 ㉚「여동빈오도송」·㉛「송상무진거사」·㉜「호제동자다라니경」, 묘향산본의 ㉝「귀의삼보편」·㉞「소동파찬법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㉚는 도사(道士)인 여동빈이 황룡선사를 본 뒤 진성(眞性)을 알아 도를 깨달았다는 내용으로, 도교에 대한 불교의 뛰어난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㉛·㉜는 유심정도와 자성미타에 관한 내용이고, ㉜는 오직 ‘불(佛)’ 한글자만이 아버지옥과 무상살귀(無常殺鬼)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화엄경』이 출전인 ㉝의 경우는, ‘불보공덕’·‘법보공덕’·‘승보공덕’의 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미타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죄업의 소멸과 극락왕생을 위해 ‘삼보’를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보유편’의 내용은 ‘왕생’과 ‘성불’을 강조하고 있는 원간본의 선명성을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염불서인 『염불보권문』의 외연을 확장시키려는 해당 판본 편자들의 시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IV. 시대적 맥락과 간행의 성격

지금까지, 『염불보권문』 7종의 이본들을 비교·검토하여 본고의 텍스트를 확정된 뒤, 텍스트의 구성과 내용적 경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염불보권문』은 수록된 글들의 출전 및 내용에 따라, 제1부 경전에서 뽑은

글, 제2부 『미타참법』 소재 왕생담, 제3부 염불의식문, 제4부 보유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유편을 제외한, 『염불보권문』은 ‘염불’의 측면에서 본다면 ‘염불의 이유(제1부)→염불의 이익(제2부)→염불의 실천(제3부)’이라는 비교적 논리적인 전개 양상을 보인다. 제1·2부는 각각 ‘부처님의 말씀’·‘왕생의 실례’를 근거로, 왕생과 성불을 염불의 이유·이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3부는 의식의 절차라는 행위를 통해 왕생·성불에 대한 희구 및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각 부의 끝에는 왕생·성불과 이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글들을 반복·배치함으로써 『염불보권문』 전체의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염불보권문』은 염불을 해야 하는 이유가 ‘왕생’과 ‘성불’에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왕생’과 ‘성불’을 위해 염불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염불보권문』의 ‘염불’이 ‘칭명염불’만을 가리키고 있는 점과, 성불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는 점은 이 책의 특징적인 국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칭명염불’과 ‘성불’의 강조는, 동시대의 염불 관련 저술들에서는 보기 드문 예에 속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17~18세기에는 그 이전·이후와 달리, 정토·염불 관련 책들이 집중적으로 편찬·간행되고 있다. 그 예로, 나암 보우(懶庵普雨, 1509~1565)의 『권념요록(勸念要錄)』(1637), 편자 미상의 『참선염불문(參禪念佛文)』(1648), 백암 성충(栢庵性聰, 1631~1700)의 『정토보서(淨土寶書)』(1686)·『정토찬(淨土讚)』(1702), 기성 쾌선의 『청택법보은문』(1767)·『염불환향곡』(1767), 해봉 유기(海峰有璣, 1707~1785)의 『신편보권문(新編普勸文)』(1776년 이후) 등을 들 수 있다.⁴⁰⁾

이 시기의 염불서 간행은 17세기 전반에 정립된 ‘삼문수업(三門修業)’과 관련이 있다. 삼문수업은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과 그의 제자인 편양 언기(鞭羊彦機, 1581~1644)에 의해 제창된 수행체계로, ‘삼문’은 간화선(看話禪)의 경절문(徑截門)과 교학의 원돈문(圓頓門), 그리고 염불문을 가리킨다. 하나의 독자적 영역을 가지지 못한 채 여러 종파의 신앙으로서 수용되었던 정토

40) 이들 책의 서지 및 내용은 이종수, 앞의 논문, 2008, pp.193-214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신앙이, 선·교와 함께 불교 수행의 영역 안에 들어온 것이다.⁴¹⁾ 그러므로 염불서의 성행은 당시 불교계의 염불문 중시를 반영한 것이자, 그만큼 수행방법으로서의 염불문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쾌선의 저서를 제외한 이들 염불서는, 대체로 염불을 선 수행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방정토·칭명염불을 언급하면서도 ‘유심정토(唯心淨土)’와 ‘관념염불(觀念念佛)’을 강조하는 ‘염불선(念佛禪)’적 경향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편보권문』의 서문에서는 염불의 요지를 구품연지(九品蓮池)와 ‘십육관선(十六觀禪)’으로 제시하고 있으며,⁴²⁾ 『권념요록』⁴³⁾의 「관법(觀法)」에서는 관상염불이 칭명염불보다 훨씬 뛰어남을 말한 뒤, 입으로 염불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야만 왕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⁴⁴⁾ 『정토보서』의 경우는 관상염불의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앉아 있을 때 먼저 내 몸이 원광(圓光) 가운데 있음을 관상하고, 코끝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관상하라. …(중략)… 이에 오래도록 익숙해지면 마음의 눈이 시원히 열리고 삼매가 현전하리니, 이것이 유심정토이다.”⁴⁵⁾ 한편, 이들 염불서는 『염불보권문』과 달리, 왕생의 목적이나 성불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선념일심(禪念一心)’ 또는 ‘선정일치(禪淨一致)’의 염불·정토관은 이들 염불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선사들에게도 해당되는 조선후기 불교계의 보편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⁴⁶⁾ 그렇지만 이와는

41) Kim Yongtae, *op. cit.*, p.136.

42) “昔我世尊 爲韋提希 說無量壽經 彼西方極樂世界九品蓮池十六觀禪 昭昭然如在目前 是實德佛之要旨也.” 海峰 有璣, 『新編善勸文』, 「序文」(『韓佛全』 9, p.695c).

43) 한문원문과 언해문이 같이 실려 있는 『권념요록』은 11편의 왕생담과 「관법」·「引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량반혼전」을 제외한 모든 글들은 『미타잡법』이 그 출전이다. 『염불보권문』의 ⑨~⑫와 ⑭·⑰의 왕생담이 이 『권념요록』에도 실려 있다.

44) “如此久久 念心成熟 自然感應 見佛全身 此法最上 謂心想佛時即是佛 又過於口念也. …(中略)… 心則緣佛境界 憶持不忘 口則稱佛名號 分明不亂 如是心口內外相應 …(中略)… 何因不生極樂國 何緣不見彌陀佛.” 懶庵 普雨, 『勸念要錄』, 「觀法」(『韓佛全』 7, p.613a-b).

45) “凡坐時 先想己身在圓光中 默觀鼻端 想出入息 …(中略)… 久久純熟 心眼開通 三昧現前 即是唯心淨土.” 栢庵 性聰, 『淨土寶書』, 「念佛法門」(『韓佛全』 8, p.487b).

46) 서정문, 「조선후기의 염불관」, 『교수논문집』 제4집(김포: 중앙승가대, 1995), pp.29-30; 이종수, 앞

다른 입장 내지 움직임 또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본고의 논의 대상인 『염불보권문』과 함께, 『청택법보은문』·『염불환향곡』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동화사본 『염불보권문』의 편자이기도 한, 쾌선의 이들 저서는 선·교를 아우르는 염불문의 수승함을 주장하고 있다. 염불문의 위상을 선 수행의 방편이 아닌, 경절문과 원돈문의 종합적 위치에 두고 있는 것이다.⁴⁷⁾ 『청택법보은문』에 따르면, 염불문은 선·교 양종과 범(凡)·성(聖)·선·악에 두루 통하는 법문일 뿐만 아니라, 삼세제불(三世諸佛)의 인지법행(因地法行)의 근본이 된다고 한다.⁴⁸⁾ 또한 이 책에서는 염불문만의 특징 및 수승함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곧 ㉠여러 법문 가운데 염불이 최상이고, ㉡여러 부처 가운데 아미타불을 염(念)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고, ㉢미타를 염하는 데에는 지명(持名)이 간이하고, ㉣법멸악세(法滅惡世)에는 오직 미타만이 탈고(脫苦)의 법이며, ㉤염불의 공덕은 지옥에서도 능히 부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⁹⁾ 이 다섯 가지 항목들은 본고의 III장에서 살펴보았던 『염불보권문』의 핵심 내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총 1150구의 한문가요인 『염불환향곡』 역시 『염불보권문』의 주제의식과 겹치고 있는데, 염불이 ‘제불의 인지법행’이라는 『청택법보은문』의 주장에 이어, 염불의 목적이 성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⁵⁰⁾ 『염불환향곡』에서 선가(禪家)의 ‘깨달음[悟]’은 불조(佛祖)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으로, 성불을

의 논문, 2008, pp.219-220.

47) 이종수, 앞의 논문, p.208.

48) “上學佛次第中 禪教二門 離言依言得入行相 由其機別 門亦迥異 然念佛一門 則禪教兩宗 及凡聖善惡通入之門也 非但一期得入之門 從初發心 乃至十地 不離念佛十地經意 卽三世諸佛因地法行之宗也.” 箕城 快善, 『請擇法報恩文』, 『別明淨土門』(『韓佛全』 9, p.646b-c).

49) 고익진, 『請擇法報恩文의 저자와 그 사상』, 『불교학보』 제17집(서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0), p.297.

50) “念佛何爲阿彌陀佛 要生極樂阿彌陀佛 往生何爲阿彌陀佛 樂見彼佛阿彌陀佛 見佛何爲阿彌陀佛 得聞正法阿彌陀佛 聞法何爲阿彌陀佛 頓悟本心阿彌陀佛 悟心何爲阿彌陀佛 發菩提心阿彌陀佛 發心何爲阿彌陀佛 入正定趣阿彌陀佛 入正何爲阿彌陀佛 眞修何爲阿彌陀佛 十地行滿阿彌陀佛 地滿何爲阿彌陀佛 入普賢門阿彌陀佛 入門何爲阿彌陀佛 成佛菩提阿彌陀佛 成佛何爲阿彌陀佛 廣度衆生阿彌陀佛.” 箕城 快善, 『念佛還鄉曲』, 『還鄉』(『韓佛全』 9, pp.658c-659a).

위한 선행조건으로 설명되고 있다.⁵¹⁾

칭명염불과 성불의 강조는, 비록 소수이긴 해도 몇몇 승려의 저술에서도 엿볼 수 있다. 추파 홍유(秋波泓有, 1718~1774)는 「영원만일회서(靈源萬日會序)」에서, 아미타불의 성호(聖號)를 부지런히 잡고 지키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음을 언급한 뒤, 염불문은 일체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 불교를 증득하는 제일 긴요한 문이라고 주장하였다.⁵²⁾ 경암 응윤(鏡巖應允, 1743~1804)의 경우는 “서방에 속박된 이는 오히려 불전(佛前)에 날 수 있지만, 서방이 없는 데에 속박된 이들은 일천제(一闍提)이다.”⁵³⁾라고 하여, 서방정토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히 성불할 수 없는 ‘일천제’에 비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염불보권문』과 쾌선·홍유 등의 담론들은, 기존의 염불선적 경향에 대한 대안이자, 일종의 ‘염불운동’을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19세기 염불결사의 성행과 왕생류 불교가사의 유행⁵⁴⁾을 통해, 당시 불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는데, 『염불보권문』이 18세기의 한 세기 동안 7차례나 판각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19세기에 들어 눈에 띄게 등장하는 선사들의 칭명염불에 관한 비판 역시 새로운 염불운동의 영향력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경허 성우(鏡虛惺牛, 1849~1912)의 “만약 산란심으로 명호만 외워도 뛰어올라 태어날 수 있다면 어찌 힘들게 일심불란(一心不亂)과 십육삼매(十六三昧)를 닦겠는가?”⁵⁵⁾와, 해담 치익(海曇致益, 1862~1942)의 “성불작조(成佛作祖)와 염불왕생이 다 다송(多誦)에 있지 않고 다만 일심(一心)에 있다.”⁵⁶⁾라는 언급들을 그 예

51) 조은수, 「<염불환향곡> 해제」, 『염불환향곡』, 현대불교신문사 엮음(서울: 현대불교신문사, 2005), pp.153-154.

52) “如來化生 方便有無數 唯勸生淨土一門爲最要 勿論貴賤智愚老少男女 若誠心執持西方極樂世界阿彌陀佛聖號 晝夜誦勤 至命終時 則彼佛接引 即得往生 …(中略)… 此門 實可謂一切衆生之出生死 證佛果之第一緊要也.” 秋波 泓有, 『秋波集』 卷2, 「靈源萬日會序」(『韓佛全』 10, p.72b~c).

53) “汝又縛於無西 縛於西者 猶可生於佛前 縛於無西 一闍提也.” 鏡巖 應允, 『鏡巖集』 下卷, 「碧公社答淨土說」(『韓佛全』 10, p.453a).

54) 이종수, 앞의 박사학위논문, pp.169-181.

55) “若以散心稱號 亦能超生 何用苦苦 做得一心不亂 與十六三昧 既違佛說 焉能成功.” 鏡虛 惺牛, 『鏡虛集』, 「與藤菴和尚」(『韓佛全』 11, p.592b-c).

로 들 수 있다.

결국, 『염불보권문』은 17세기 전반 삼문수업의 정립 이후, 기존의 염불선적 경향에 대한 대안으로 전개되었던 새로운 염불운동을 제창 내지 선도한 시대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문과 한글을 사용하여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성불’을 정토신앙의 본질 및 불교 본연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 역시 그 의의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56) “故成佛作祖 念佛往生 皆不在多誦 只在一心也.” 海晏 致益, 『曾谷集』 下卷, 「勸念文」(『韓佛全』 12, p.802b).

참고문헌

1. 2차 자료 및 단행본

- 기성 쾌선,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염불환향곡』, 서울: 현대불교신문사, 2005.
- 김무봉, 『(역주) 칠대만법·권념요록』,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 김영배·정우영·김무봉 편저, 『염불보권문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 동악어문학회, 1996.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2010.
- 김종진, 『불교가사의 연행과 전승』, 서울: 이회문화사, 2002.
- 김종진, 『불교가사의 계보학, 그 문화사적 탐색』, 서울: 소명출판, 2009.
- 정우영·김종진 옮김, 『염불보권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 김종진 옮김, 『정토보서』,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2. 논문

- 고익진, 「청택법보은문의 저자와 그 사상」, 『불교학보』 제17집, 서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0, pp.290-306.
- 남희숙, 「16~18세기 불교의식집의 간행과 불교대중화」, 『한국문화』 제34집, 서울: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4, pp.97-144.
- 서정문, 「조선후기의 염불관」, 『교수논문집』 제4집, 김포: 중앙승가대학, 1995, pp.7-36.
- 이종수, 「조선후기 정토사상 연구」, 『회당학보』 제13집, 서울: 회당학회, 2008, pp.191-221.
- 이종수, 「18세기 기성쾌선의 염불문 연구」, 『보조사상』 제30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8, pp.146-172.
-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三門修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이지관, 「저서를 통해 본 조선조의 정토사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편, 『한국정토사상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5, pp.181-240.
- 최형우, 「18세기 경상지역의 『보권염불문』 간행과 수록 가사 향유의 문화적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60집, 서울: 열상고전연구회, 2017, pp.151-187.

- 한태식, 「정토교에서의 깨달음 문제」, 『정토학연구』 제12집, 서울: 한국정토학회, 2009, pp.50-100.
- 홍윤식, 「엄불의례를 통해 본 한국의 정토사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편, 『한국정토사상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5, pp.297-328.
- Kim Yongtae, “The Establishment of the Approach of Chanting Amitabha’s Name and the Proliferation of Pure Land Buddhism in late Choson”,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6-1, Seoul: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n, 2015, pp.131-157.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18th Century *Yombulbogwonmun*(念佛普勸文) and Its Buddhist Historical Meaning

Kim, Ki-Jong
HK Research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Yombulbogwonmun(念佛普勸文) is composed of four parts; collected texts from Buddhist scriptures, stories about the rebirth in the Pure Land that are selected from *Yenyommitoryangchambop*(禮念彌陀道場懺法), ritual procedure of chanting Amitabha's name, and lastly, supplementary parts. As the arrange suggests, this book shows relatively logical development of contents from the reason of chanting Amitabha's name, to the profit of the chanting practice, and to the practice manual of chanting Amitabha's name. except for the supplement.

The first part based on the words of the Buddha gives the reason for calling Amitabha's name. The second part that provides the examples of those who went to the Pure Land shows the profit of the practice, that is, the rebirth in the Pure land and becoming a Buddha. The third part reveals the actual procedure to attain the goal of the chanting practice. At the end of each section, I repeat the articles emphasizing the faith of rebirth in the Pure land and becoming a Buddha, so that the subject of the entire *Yombulbogwonmun*(念佛普勸文) is clearly highlighted.

Yombulbogwonmun(念佛普勸文) emphasizes the need to chant Amitabha's name for rebirth in the Pure land and becoming a Buddha while showing the reasons for rebirth in the Pure land and becoming a Buddha. In particular, the emphasis on becoming a Buddha is a notable characteristic of this book. *Yombulbogwonmun*(念

佛普勸文) can be said to have meanings of the times. It led and advocated a new religious movement that had been developed since the 17th century, emphasizing chanting Amitabha's name and becoming a Buddha. It also pointed out that becoming a Buddha reminds us of the essence of the faith of Pure Land and the purpose of Buddhism.

Keywords

Yombulbogwonmun, Yenyommitatoryangchambop, Myongyon, Chanting Amitabha's Name, Pure Land, rebirth in the Pure land, becoming a Buddha

2018년 02월 19일 투고

2018년 03월 14일 심사완료

2018년 03월 16일 게재확정

